칼 차고 지키는 대신 하나님 칼만 피하라

(열왕기하 8:1~29)

7.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8.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9.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사십 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10.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11.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12.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앎이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메치며 아이 밴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13.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14.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15.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매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칼 차고 지키는 대신 하나님 칼만 피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칼 차고 지키는 대신 하나님 칼만 피하라'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찹니다. 그런데 우리가 칼을 찬다고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 것을 빼앗아 가시려는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 있으면 되는데,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은 적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북에 의해서 큰 곤란을 당할 때가 있지만 실은 이북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 것을 지키는 길은 내게서 빼앗아 가시려는 하나님의 칼을 피하는 데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스승님을 모시고 강을 건너가려다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다가오더니 '스님! 제가 이 강물을 건너야 하는데 건널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자 스승님은 별 말씀 안 하시고 곧장 '그래요? 갑시다. 내가 건너 드리죠.'라고 하면서 여인을 두 손으로 안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 반나절을 지나서 암자에 도착했을 때 스님이 내내 궁금했던 것을 스승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 스님들은 여자와 접촉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스승님은 '그래! 맞다. 나는 강을 건너자마자 여자를 내려놓았는데 너는 아직도 그 여자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셨답니다.

불교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는 참 세밀하고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집중해야 하는 이들은 우리 기독교인인데도 불교가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강단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는 설교가 이루어지는 교회는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화의 '너는 아직도 그 여자와 함께 있느냐?'라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스승님은 여자의 몸을 당신의 팔로 안아서 강을 건넜지만 여자를 내려놓음과 동시에 마음에서 여자를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암자까지 오는 내내 반나절 동안 여자를 생각하며 마음으로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는 끝나지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스승님은 마음을 줄곧 어디에 두고 암자까지 오신 걸까요?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사성제(四聖諦)를 이루시고 성불해서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해탈을 하신 걸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의 한계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대상으로부터의 집착을 벗어남으로 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 꽁꽁 묶일 때에 마음에는 해탈이 일어나고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름만을 주셨지 당신 자신을 계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계시 받지 못한 불교는 갈 수 있는 길이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곳까지 밖에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마음이 누구와 무엇과 함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창 3:24절에 인간이 타락 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라고 하시는데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인간의 마음이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붙잡는 이유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이고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에덴동산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로 지키는 것은 본래 기쁨은 에덴동산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 하나님 대신에 돈을 붙잡지만 에덴동산을 지키는 불 칼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불 칼은 지금도 계속해서 현실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려고 해도 벌리지 않아서 고통이 주어지고 번 돈도 지킬 수가 없이 이래저래 다 뜯겨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붙잡고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에덴동산의 불 칼에 걸려들게 됩니다. 기쁨은 에덴에만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에덴을 향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뜻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으려고 에덴을 향할 때에 반드시 불 칼에 맞아 생채기가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하사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하사엘'은 아람 왕의 신하였는데 왕을 죽이고 그 자리에 오른다는 예언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좀 맥락이 뜬금없습니다.
앞서서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엘리사가 7년 기근이 임할 것을 수넴 여인에게 알려주면서 식솔들을 거느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있다가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떠났다가 돌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하사엘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뒤로는 남 왕국 유다의 여호람 왕이 유다의 속국으로 있었던 에돔이 배반을 해서 독립을 하려는 바람에 에돔을 치러 갔다가 오히려 에돔 군대에 포위되어 죽을 뻔하고 겨우 도망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남 왕국 유다의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왕이 북 왕국의 요람 왕이 아람을 칠 때에 같이 도왔다가 왕이 된 하사엘에게 져서 요람 왕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상처가 덧나서 병이 길어지니 아하시야가 요람 왕의 문병을 왔다는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예후가 등장하면서 문병 갔던 아하시야 왕이 북 왕국에서 죽임을 당하고 병들었던 요람도 죽고 이세벨까지도 죽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사엘의 이야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앞에 수넴 여인 이야기와 뒤에 나오는 여호람 왕이 에돔의 모반을 진압하러 갔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왔다는 이야기와, 여호람의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 왕국 요람 왕과 아람을 치려고 했다가 오히려 하사엘에게 지고, 요람 왕의 병문안을 갔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 속에 하사엘 이야기가 끼어있습니다.
왕하10:32절에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

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사엘이 등장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시려는 하나님의 칼로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이라는 칼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의 수넴 여인과는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권고를 듣고 기근을 피해 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희한한 타이밍에 의해서 땅을 되찾습니다.
수넴 여인이 7년 만에 귀국하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땅을 차지하고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돌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에게 호소하려고 했을 때에 마침 그 자리에 왕에게 엘리사의 업적을 소개하고 있던 게하시가 이전에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깜짝 놀라서 '그래!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냐?'라고 하자 게하시가 '바로 저 여인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수넴 여인의 호소를 듣고 땅을 다 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땅을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땅을 되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남 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람은 속국이었던 에돔이 조공을 바치다가 독립을 선언하며 배반하자 그 땅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군대에게 포위되어 죽을 뻔했는데 겨우 목숨만을 건져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땅을 지키기 위해서 길르앗 라못 쪽에서 아람과 북 왕국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전쟁을 할 때에, 아하시야도 자기 땅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참전하였습니다. 요람 왕은 아하시야의 외삼촌입니다. 이때의 패배로 인해 요람은 상처를 입어 죽고, 아하시야는 요람의 문병을 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수넴 여인과 북 왕국의 요람과 남 왕국의 여호람, 아하시야도 땅을 차지하려는 이야기에 함께 동원되고 있는데, 여기서 하사엘은 이들의 땅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칼로서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칼을 들고 선민들의 땅을 가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정말 성격이 감당할 수 없는 이상한 분이시란 말입니까?
수넴 여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땅을 두고 떠나라고 하자 그대로 행합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당시에 남편이 죽은 과부에게 땅은 삶의 근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는 바알 숭배가 편만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지켜지는 시대였다면 땅을 칠 년 두고 갔더라도 돌아왔을 때 찾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칠 년 만에 돌아오자 그 땅을 빼앗겨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떠났던 것입니다.

스님에게 스승님이 물어보았던 것처럼 ‘너는 아직도 마음이 그 여자와 함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아직도 네 마음이 이 세상 것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모셔 놓고 아직도 마음이 이 세상에서 자녀나 남편과 함께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그것을 붙잡고 기쁨을 얻으려 할 때에 반드시 불 칼이 임하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칼로 쓰시지만, 진의는 태초로 돌아가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으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에덴동산에 불 칼을 두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전에는 기쁨과 만족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으로 돈 성공 건강 장수 등을 붙잡고 기쁨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불 칼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던 수넴 여인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이 땅에서 마음이 붙잡은 것을 칼을 차고 지키려 하지 말고 십자가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든 것들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아무것도 바란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되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돈이나 자녀를 붙잡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불 칼은 임하고 고통은 커집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요즘과 똑같이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가 편만하게 이루어지던 배경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요새 한국은 난리입니다. 일 년에 몇 십 척씩 대형 유조선이나 선박을 수주하던 제1의 조선업 강국이었는데, 금년에는 삼성중공업에서 유조선 두 척을 수주한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한진해운도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수출 빅딜 3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현대자동차에서는 노사분규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연봉이 8천에서 9천이랍니다. 물론 회사대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을 잡는다고 정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로봇이나 첨단산업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첨단산업이라는 게 없고, 제조업만 쫓아가다가 제조업마저 한계에 부딪혔다고 하고 이북은 이북대로 남한을 괴롭힙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외교 경제 정치 등 어느 것 하나 순탄한 흐름이 보이질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여당의 대표가 국회의장 그만두라며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입니까?
국회의장이 문제가 있으면 국회 안에서 통용되는 길과 관습과 법을 따라서 잘못을 판단해야 할 텐데 죽기를 각오하고 여당의 대표가 국회의장 물러가라고 단식을 하는데 나라가 주인이 없고 방향도 없이 각 분야가 럭비공처럼 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주어진 것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몸조차도 십자가에서 떠나보내셨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자기 삶의 근간인 땅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몸조차도 마음에서 떠나보낼 때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닥친 위기도 하나님의 불 칼입니다. 하도 돈 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있고 선민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사엘이라는 이방인의 칼을 통해 선민의 땅을 자르시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살 길입니다. 내가 칼을 차고 내 것을 지키겠다고 하지 말고 수넴 여인이 떠났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미리미리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게하시와 왕의 대화를 통해 수넴 여인에게 땅을 찾게 하신 것처럼 기가 막히는 놀라운 타이밍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북 왕국의 요람이나 남 왕국의 여호람 왕처럼 내가 칼을 차고 땅을 지키려 한다면 하나님의 불 칼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북과 통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나리오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칼 차고 북한에 대해 강공을 펼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도와줘서 될 일도 아닙니다.
나라가 아무리 요동치고 혼란스럽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말려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그것들에 대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땅을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외교적 상황까지도 아람 왕 하사엘을 주장하셨던 것처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가 칼 차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대신에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땅 위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